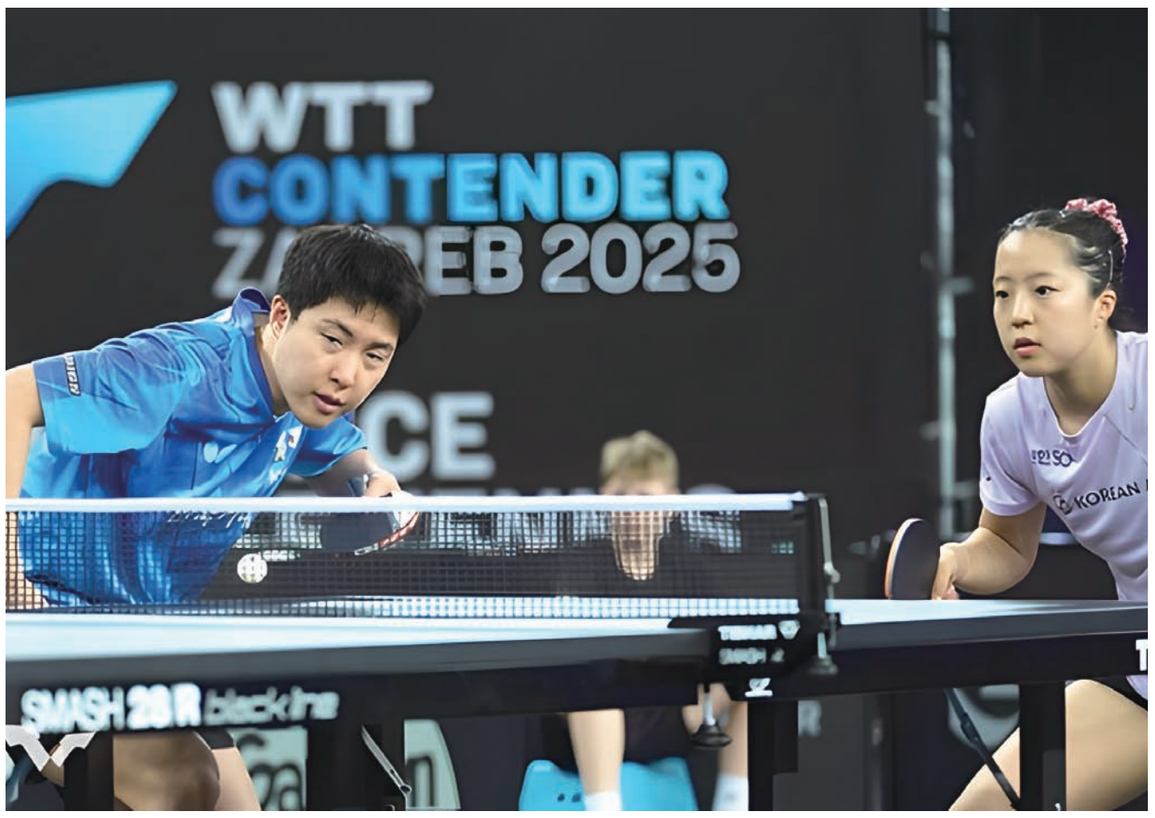
임종훈·신유빈 2주 연속 우승… ‘K무적 남매’

자그레브 대회서 中 3-0 격파
준결서도 日 오누이 팀에 완승
올들어 WTT 대회 3번째 정상
공수 ‘찰떡궁합’… 전력 최고조



WTT 자그레브 혼합복식에 출전한 임종훈(왼쪽)과 신유빈. WTT 인스타그램 캡처

한국 탁구의 ‘환상 콤비’ 임종훈(한국거래소)-신유빈(대한항공) 조가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컨텐더 자그레브 2025’에서 만리장성을 넘어 2주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29일 오전(한국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황유정-천이 조를 3-0(12-10 11-8 11-9)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임종훈-신유빈 조는 지난주 WTT 스타 컨텐더 류블랴나에서 우승한 데 이어 WTT 시리즈에서 2주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난 3월 첸나이 대회를 포함하면 올해 WTT 시리즈 세 번째 우승이다.

준결승에서 일본의 ‘오누이 콤비’ 하리모토 도모카즈-하리모토 미와 조를 3-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오른 임종훈-신유빈 조는 중국의 황유정-천이 조를 만났다.

작년 파리 올림픽과 올해 5월 도하 세계선수권(개인전) 대회에서 각각 동메달을 수확했던 임종훈-신유빈 조의 찰떡궁합이 돋보인 경기였다.

신유빈의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왼손 임종훈이 날카로운 드라이브 공격을 펼쳐 첫 게임 듀스 대결을 12-10으로 따내며 기선을 잡았다.

10-9 게임 포인트에서 상대 공격에 듀스를 허용했지만,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2연속 득점했다.

2게임 들어서도 6-7 열세를 딛고 강한 공세로 3연속 득점해 9-7로 전세를 뒤집은 뒤 여세를 몰아 11-8로 이겼고, 3게임마저 11-9로 이겨 3-0 승리와 함께 WTT 시리즈 2주 연속 축배를 들었다.

임종훈은 앞서 열린 남자복식 준결승에 선 같은 팀 후배인 안재현과 호흡을 맞췄지만, 중국의 황유정-쉬페이 조에 1-3(8-11 9-11 12-10 7-11)으로 져 2주 연속 우승 도전에는 실패했다.

임종훈-안재현 조는 1-2게임에서 패한 후 3게임을 듀스 접전 끝에 따냈지만, 4게임을 7-11로 져 공동 3위에 주는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또 여자복식 4강에 올랐던 유한나-김나영(이상 포스코인터내셔널) 조도 일본의 요코이 사쿠라-사토 히토미 조에 0-3으로 완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한편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단식 준결승에 올랐던 안재현은 남자단식 4강에서 중국의 천위안위에게 0-3으로 완패해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페굴라, 시비옹테크 꺾었다
WTA 홈부르크오픈 우승

제시카 페굴라(3위·미국·사진)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바트 홈부르크오픈(총 상금 106만4510달러) 단식 정상에 올랐다.

페굴라는 28일(현지시간) 독일 바트홈부르크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이가 시비옹테크(8위·폴란드)를 2-0(6-4 7-5)으로 제압했다.

4월 찰스턴오픈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투어 단식 우승컵을 획득한 페굴라는 우승 상금 16만4000달러(약 2억2000만 원)를 받았다.

페굴라의 어머니 킴 페굴라는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런 사연으로 페굴라는 2019년 서울에서 열린 WTA 코리아오픈에 나와 자신을 ‘하프 코리안’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세 번째 우승을 달성한 페굴라는 WTA 투어 단식에서 통산 9번째 정상에 올랐다.

잔디 코트 우승은 지난해 6월 역시 독일에서 열린 에코트란스 레이디스오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또 올해 세 번 우승을 하드 코트와 클레이 코트, 잔디 코트에서 각각 한 번씩 이뤄냈다.

반면 시비옹테크는 잔디 코트 대회에서 처음 결승에 진출했으나 우승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하드 코트 우승 12회, 클레이 코트 우승 10회를 기록 중인 시비옹테크는 이날 패했지만 30일 개막되는 잔디 코트 메이저 대회 윔블던을 앞두고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필리핀 선수 최초로 WTA 투어 단식 결승에 올랐던 2005년생 알렉산드라 이알라(74위)는 영국 이스트본에서 끝난 WTA 투어 이스트본오픈(총 상금 38만9000달러) 단식 결승에서 마야 조인트(51위·호주)에게 1-2(4-6 6-1 6-7(10-12))로 졌다.

6일 만에 출전한 김혜성, 2안타로 존재감 과시

캔자스시티전 3타수·1득점·1볼넷·1도루 활약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에서 뛰는 김혜성(26·사진)이 6일 만에 안타를 생산했다.

다저스는 29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B 정규시즌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5-9로 졌다.

8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혜성은 4타석 3타수 2안타, 볼넷 1개와 도루 1개, 삼진 1개,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72에서 0.383(81타수 31안타)으로 올랐다.

김혜성이 선발로 나온 것은 23일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 이후 6일 만이다.

최근 네 경기 연속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한 김혜성은 이날 6일 만에 출전해 2안타를 때려 냈다.

김혜성은 출전해 타석에 들어선 경기 기준으로 최근 5경기 연속 안타를 치고 있다.

2회 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캔자스시티 선발 세스 루고를 상대로 볼넷을 고른 김혜성은 곧바로 2루를 훔쳐 시즌 7호 도루에 성공했다. 올해 도루 7번 시도에 7번 성공의 100% 확률을 이어갔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을 당한 김혜성은 6회 2사 1루에서 내야 안타를 때렸다.

루고의 7구째 시속 148㎞ 커터를 잡아당긴 김혜성의 타구는 2루수 깊은 곳으로 향하며 내야 안타가 됐다.

팀이 1-9로 끌려가던 9회 마지막 타석에서도 김혜성은 선두 타자로 나와 우전 안타를 쳤다.

캔자스시티의 네 번째 투수 샘 롱의 5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통타한 김혜성은 1루에 살아 나갔고, 이어진 2사 만루에서 맥스 먼시의 우전 안타 때 홈을 밟았다.

다저스는 9회 4득점 하며 뒤늦은 추격전에 나섰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8회까지 벌어진 점수 차가 너무 컸다.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는 이날 선발로 나와 2이닝을 안타 1개, 볼넷 1개, 삼진 1개 무실점으로 막았다. 시즌 세 번째 선발 등판한 오타니는 최고 시속 163.7㎞(101.7마일)의 빠른 공을 던졌다. 이는 오타니의 개인 최고 구속이다.

6연승 달성에 실패한 다저스는 52승 32패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1위를 지켰다.

治 人 治 世 선미디어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

황종택 칼럼 신온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종택 칼럼 신온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종택 칼럼 신온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